

##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은 나라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1부 예배 재개: 8월 첫 주일부터, 1부-12시 Teestube, 2부-14시 Mutterhauskirche
- 말씀일기문집 원고: 개인당 2~3편 9월 15일까지 배진우님께  
자녀들도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귀국: 권예지
- 귀가: 석혜진
- 미국방문: 박성호-박성희 가족
- 한국방문: 최성호-이선영 가족,
- 병상: 정규선(점차 회복 중)
- 생일: 최수정, 강판연, 채해웅, 최민서

### ◆ 말씀일기 일정

일/렘5:10-19	월/렘5:20-31	화/렘6:1-15	수/렘6:16-30
목/렘7:1-15	금/렘7:16-29	토/렘7:30-8:3	일/렘8:4-17

-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0독

### ◆ 예배위원 안내 ◆

	7월 16일	7월 23일	7월 30일	8월 6일
예배기도	한상철	허지은	민경웅	한정우
말씀일기 안내위원	이지민	김성희	오수향	배진우
헌금위원	예배부 이승엽, 백운정			
예찬위원	발상 하나	발상 둘	발상 셋	발상 넷

40-29호

2023년 7월 16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동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문음방  
청년부 모임 15시 30분 Teestube 문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문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http://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	14장 3절 .....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44번 .....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	430장 .....	다 함 께
기도/Gebet .....		한상철 장로
말씀일기/Bibeltagebuch .....		이지민 교우
찬양/Chor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표현아 교우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37:1-11 .....	인 도 자
설교/Predigt .....	꿈의 주인 .....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425장 .....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입니다.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u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 이지민 교우의 말씀일기 예레미야 3:19-4:4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며, 가장 기뻐하고 귀한 땅에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수많은 이방 신을 만들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죄의 삶을 산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처절한 통탄을 들으며, 마치 옆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속상하심과 분노가 느껴지고, 마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음이 약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너무나 송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여호와와 함께 살기를 두고 맹세하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라.'(4:1-2)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죄송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놓인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죄를 저지르는 나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신다. 또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나, 진실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 교회를 다니면 다닐 수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되면 될 수록,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느낀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명예, 성공 등에 욕심을 가지고 우선에 두며, 그것을 위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매인 기도를 하며 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임을 이제 이해한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4:3) -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세상의 욕망을 향한 욕심으로 인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반성하며 다짐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 역시 세례교육 때 배웠던 세 가지-성경(말씀), 기도, 교회(나눔)을 통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하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